

신안군, 여객선사와 업무제휴 협약

“대의 관광객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비금·도초·흑산·홍도·가거도 등 운항

신안군관광협의회(이사장 남상울)는 지난 22일 한국해운조합목포지부회의실에서 비금·도초·흑산·홍도·가거도등을 운항하는 여객선사 (주)남해고속 성기순대표, (주)동양고속해운 황길연대표와 선장, 선원 등 15명이 참석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협약내용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비교우위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에 필요한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홍보 추진, 1004섬 신안군을 폭넓게 알리는 선내 홍보영상물 방영, 홍보물배부,

수익사업및 여객선사 협조사항 진행 등이다. 이 자리에서 남상울이 사장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여행업계는 물론 비금·도초·흑산·홍도등에 있는 많은 서비스 업종과 지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여객선사와 공동으로 새로운 관광마케팅 모델을 만들어 대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신안군관광협의회는 여객선사와 공동으로 민선7기 이후 천사대교 개통을 비롯 퍼플아일랜드 조성, 무한의 다리 등 중부권의 변화



된 브랜드에 맞춘 홍보 추진을 위해 젊은층의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와 흑산권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주)남해고속 성기순대표 사장은 “신안군관광협의회와 지역

상생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선원들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탁월한 안전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친절한 신안의 이미지가 인식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전동평 영암군수 한국판 뉴딜정책 제안

농어촌지역 자원 활용 그린뉴딜 정책 10종 발표

영암군은 지난 20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개최한 '한국판 뉴딜' 기초지방정부 정책제안 간담회에 참석하여 농어촌자원을 활용한 그린뉴딜사업 10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주최하고 이낙연 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 각 지치단체장 14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중점사업으로 ▲그린뉴딜 거버넌스 체계 구축(그린뉴딜추진협의회-민관협의체) ▲농촌지역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공공시설 및 민집정비사업 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주민참여형 신재생 태양광발전 확대(슬라 파밍 : 영농형 태양광,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풍력발전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육상풍력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팜 조성사업 확대(스마트 팜 시범단지 확대, 스마트 팜 청년보육사업 내실화) ▲경관농업의 확대(공동

체 기반형 마을기업 육성) ▲산림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그린뉴딜사업 추진(산림자원 관리사업, 밀원수 다량산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영농기반 구축(지역단위 농지은행 운영 내실화, 스마트 팜 부지 확보) ▲생태하천 복원과 주민공동체를 통한 지속관리 추진(농촌지역 단위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농촌형 그린뉴딜에 특화된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발굴·육성(사회경제기업단 협업사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영암군에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19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항에 따른 각종 사회·경제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바탕으로 농촌형 뉴딜정책을 더욱 더 개발·발굴하여 영암형 뉴딜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군, 초중고교 원격수업 스마트기기 지원

인재육성기금 1억 원

영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온라인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재육성기금 1억 원을 영광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원격 수업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스마트기기가 없어 온라인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학교별 원격수업이 진행될 때도 소외되는 학

생 없이 보다 원활한 수업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기기는 영광교육지원청에서 태블릿 PC와 노트북으로 일괄 구입 후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배부 및 대여하며 온라인 수업 외에도 소프트웨어 교육, 캠프, 교사 연수 등에 활용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초래 되지 않고 교육 사각지대 없이 모든 가정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어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 경제 살리는카드형 상품권 ‘목포사랑카드’

오는 7월부터는 카드형 목포사랑상품권 ‘목포사랑카드’가 출시된다.

목포시는 지난해 9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지류형 목포사랑상품권에 이어 7월 1일부터는 지역은행인 광주은행과 협약을 맺고 카드형 목포사랑상품권인 ‘목포사랑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목포사랑카드는 목포시에 있는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설치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와 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는 목포사랑카드는 별도로 현금구매하거나 충전할 필요 없이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해 바로 사용하면 되고, 월 할인한도는 50만원 이내 이다.

50만원 이내 사용액에 대해 다음달 10일 까지 할인율(7월 출시 기념 10%, 평시 6%)을 적용해 캐쉬백 형태로 되돌려 받게 되며, 광주은행 포인트 혜택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을 적용은 시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하며 사전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무안, 무인악취포집기 24시간 악취 감시

무안군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악취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무인악취포집기'를 구입해 6월 중순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악취 민원 발생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해 악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에서는 그동안 악취 발생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도착하면 악취 유발 물질이 공기의 대류에 의해 사라져 악취 포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무인악취포집

기 운영을 통해 악취 발생 지점 공기를 즉시 포집할 수 있어 현장출동과의 시간차를 최소화하는 등 악취 민원 애로사항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악취는 감각공해로 기증치 이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며 “무인 악취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감시가 취약한 시간대의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군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무안군, 천연염색 강좌 실시

9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향교 명륜당서



무안군은 6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향교 명륜당과 넓은 마당에서 천연염색 강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천연염색 강좌는 문화재청의 문화재활용 공모사업에 '향교에 문이 열렸다'가 선정되어 옛 선조들의 지방교육기관인 무안향교(務安鄕校)에서 실시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양파의 연노랑, 쪽의 파랑, 감의 갈색, 울금의 진한 노랑, 코치닐의 보라색과 같이 자연에서 얻은 염료를 사용하여 자연과 닮은 고운 색감의 손수건과 스카프를 만들 예정이다.

특히 쪽 염색은 향균성과 소취성이 뛰어나 땀이 배지 않아 냄새가 나지 않고 통기성, 흡습성이 좋아 여름에 스카프로 만들어 착용하면 시원하고 자외선 차단효과도 뛰어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들고 무더위에 지친 군민들이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 옛 선조들의 교육기관에서 고운 색을 만들어내는 천연염색을 배우고 실생활에 활용하며 지친 심신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연염색 관련 수강신청 및 문의사항은 무안향교(☎061-452-8679)로 하면 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